

# PUBLIC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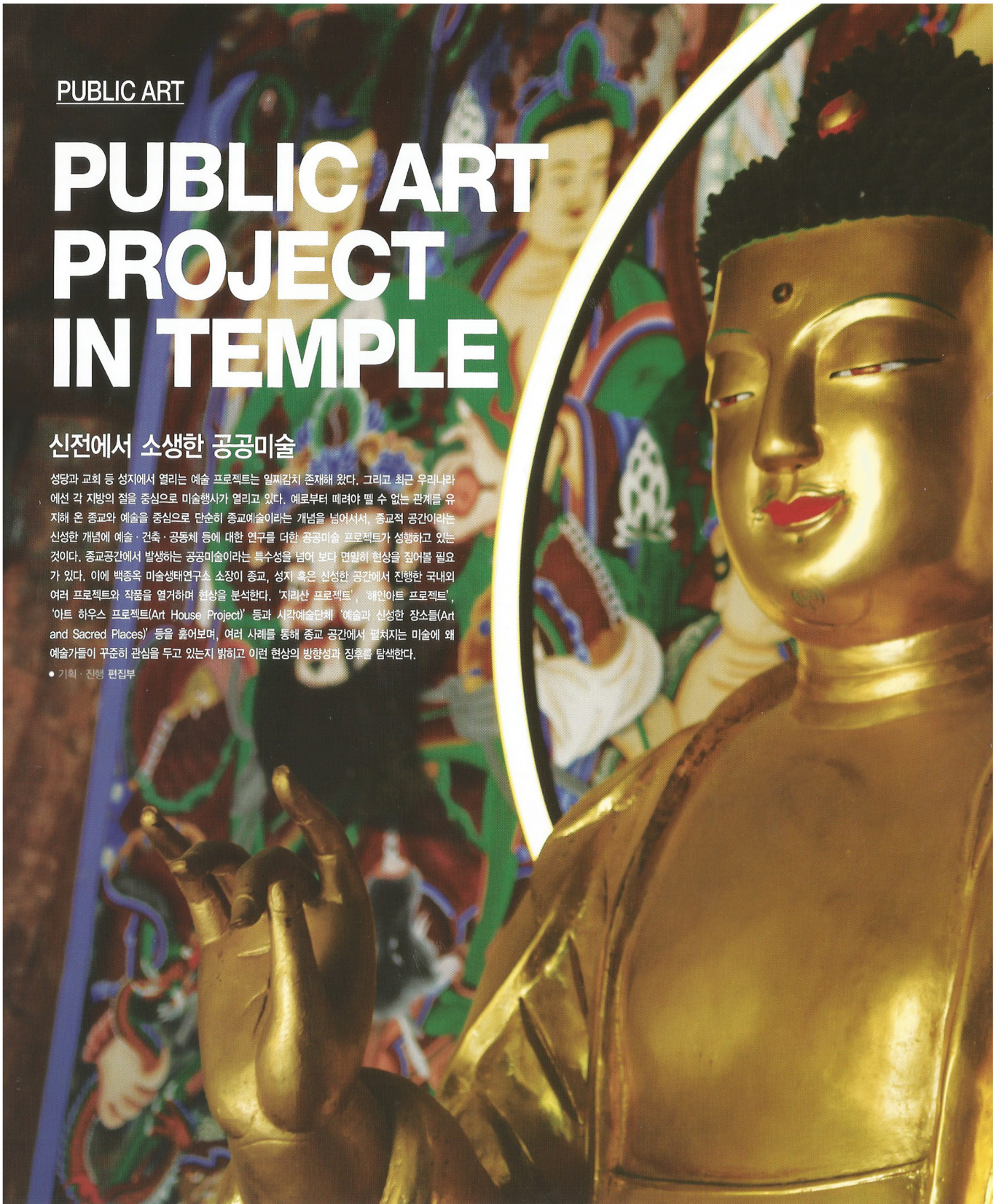
PUBLIC ART

## PUBLIC ART PROJECT IN TEMPLE

### 신전에서 소생한 공공미술

성당과 교회 등 성지에서 열리는 예술 프로젝트는 일찌감치 존재해 왔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선 각 지방의 절을 중심으로 미술행사가 열리고 있다. 예로부터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해 온 종교와 예술을 중심으로 단순히 종교예술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종교적 공간이라는 신성한 개념에 예술·건축·공동체 등에 대한 연구를 더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공간에서 발생하는 공공미술이라는 특수성을 넘어 보다 면밀히 현상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백종옥 미술생태연구소 소장이 종교, 성지 혹은 신성한 공간에서 진행한 국내외 여러 프로젝트와 작품을 열거하며 현상을 분석한다. '지리산 프로젝트', '해인아트 프로젝트', '아트 하우스 프로젝트(Art House Project)' 등과 시각예술단체 '예술과 신성한 장소들(Art and Sacred Places)' 등을 훑어보며, 여러 사례를 통해 종교 공간에서 펼쳐지는 미술에 왜 예술가들이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는지 밝히고 이런 현상의 방향성과 징후를 탐색한다.

● 기획·진행 편집부



1. 패트리시아 크로닌(Patricia Cronin) 〈Shrine for Girls(부분)〉 2015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설치전경 사진: 마크 블로워(Mark Blower)
2. 장영철 〈실상사 기도소 416-304〉 가변 설치
3. 임옥상 〈허허금강〉 2008 코르틴 강 320×230×230cm
4. 성신석조각연구회 〈돌꽃길〉 가변설치

시 스기모토(Hiroshi Sugimoto)가 에도시대에 지어진 고오진자(護王神社, Go'o Shrine)를 새롭게 디자인한 〈적절한 비율(Appropriate Proportion)〉(2002)이라는 작품이 있다. 씨족신을 모시는 이 신사는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인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듯 신사 본당과 지하 석실을 유리계단으로 연결한 모습이 상징적이다. 그리고 나오시마의 '미나미데라(南寺, Minamidera)' 도 흥미로운데, 과거 불교 사찰이었던 자리에 안도 타다오(Ando Tadao)가 공간을 만들고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이 내부에 〈달의 뒷면(Backside of the Moon)〉(1999)이라는 작품을 설치했다. 이곳은 어두운 실내에 들어간 방문객들에게 영적인 장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그 밖에 살펴볼 만한 프로젝트로는 2004년 베이징에 있는 천국의 사원(Temple of Heaven) 광장에 프랑크 작가 다니엘 뷔렌(Daniel Buren)이 설치한 〈Some Azure in the Temple of Heaven〉이라는 푸른 깃발 작품들이 인상적이다. 명나라 황제 영락제가 재위하던 1420년에 만들어진 이 사원은 천자인 황제가 한 해에 두 번 머무르며 하늘에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 장소였다. 이처럼 사원 앞 광장이나 내부에 미술작품을 설치한 사례를 찾는다면 더 많을 것이다. 주로 성당이 도심 광장에 자리 잡은 유럽에선 낯설지 않은 편이다. 필

자도 지난 2001년에 베를린의 쾰른 교회(Zions Kirche)에서 학교 동료들과 함께 전시회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전시회 전후로 미술작품과 특정한 공간이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앞의 사례들처럼 종교적 공간에서 펼쳐지는 미술에 대해 예술가들이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작가와 전시 기획자의 본래 목적이나 의도를 넘어 이런 현상들이 보여주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방향성이다. 그 방향성의 의미를 탐색하려면 미술사를 관통하는 큰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한 지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위에 열거한 여러 사례가 보이는 징후들은 예술의 자율성으로 인해 잃어버린 그 무엇을 되찾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 자유 혹은 표류

'순수하게 예술을 위한 예술만을 추구하며 불안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예술가'라는 이미지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게다가 사랑, 자살, 천재, 영혼과 같은 단어가 결합하면 대중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만한 드라마가 완성된다. 이렇게 예술가들이 순수하게 예술을 위한 예술만 추구한다는 생각, 즉 '예

술의 자율성'이란 관념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미술의 영역에서는 19세기 유럽의 낭만주의와 인상주의를 거치면서 이런 관념이 강해졌다. 특히 이 시기부터 예술가들이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화풍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개성을 중시했다는 것은 예술가 스스로 독특한 사유와 감성을 의식하고 표현했다는 말이다. 이처럼 자의식을 가진 예술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의 예술세계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자다. 예술의 자율성과 자유로운 예술가란 관념을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낯설지 않지만, 기나긴 예술의 역사로 보면 이런 관념이 유행한 시기가 오히려 특별하게 다가온다. 샤먼(shaman)이 제의를 하던 아득한 옛날부터 근대 이전까지 미술은 주로 종교의 품 안에서 제작되고 소비되었다. 공동체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신전, 예배당, 사찰, 묘지 같은 성소들은 신화와 종교 이야기를 다룬 회화, 조각 등으로 풍부하게 장식되었다. 또한, 왕궁, 성곽, 관청 등 공공건물에도 미술 장식은 필수였으며, 귀족들의 저택과 정원을 치장하는 일도 예술가들의 몫이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술가들은 굳이 예술의 자율성을 떠올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미술이 종교와 지배계층의 욕망에 충실히 복무하던 세상은 18-19세기 산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